

# “돌 따라 펼쳐진 광주 역사”... 광주문화재야행 성황

## 동구 제7회 광주문화재야행

지역 유·무형 문화재 볼거리 문화재 해설사와 야행 걷기 “문화재 다시 생각하는 시간”

초여름의 정취가 무르익은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흥겨운 풍물패 소리가 우렁차게 퍼지기 시작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광주문화재야행’이 5·18민주광장 ‘재명석등’, 광주읍성유허, 서석초 일원에서 열렸다.

풍물단들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태평소를 불고 징과 팽과리로 박자를 맞추며 신나는 국악 공연을 펼쳤다. 풍물패의 음악 소리에 어느새 주변에는 구름떼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얼췌” “좋다” 추임새를 넣으며 한껏 흥을 돋웠다.

공원이 펼쳐지는 바로 옆에는 샷을 쓴 아이들이 붓글씨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은 벼루에 고인 먹물을 찍어 도화지에 짝짝 그렸다. 옛된 실력으로 난을 치기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며 편지를 쓰기도 했다.

송원초 3학년 이채아(10)양은 “엄마, 아빠랑 같이 외식하고 놀러 나왔다. 붓으



포졸로 분장한 스태프들이 꼬마의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이 ‘사모’ 분장을 하고 아이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로 글씨를 처음 써보는데, 도화지가 빨리 젖어 생각보다 글 쓰는 게 어렵다”며 “그래도 재밌다. 이렇게 어두운 검은색은 처음 봤다”고 웃었다. 포졸로 분장한 스태프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꼬마의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포졸들의 설명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다.

김지안(9)군은 “의병의 뜻을 처음 알았다. 나라가 위험해지면 꼭 의병 활동을 하겠다”며 “드라마에서만 보던 옷을 이렇게 입어보니 신기하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돌의 안부-spring of stone’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주요 문화재 일원에서 ‘8夜(야경·야로·야설·야사·야화·야시·야

식·야숙)’의 테마로 열렸다.

동구는 7년 연속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활용사업에 선정되면서 코로나19 일상 회복 시기에 맞춰 이번 축제를 모든 시민들이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대면 축제로 계획했다.

올해는 무등산의 상서로운 ‘돌’(서석)이 11세기 석주장이에 의해 ‘석등’(재명

석등)이 되고, 16세기 안전한 도시를 꿈꾸며 ‘성돌’(광주읍성)을 쌓았던 구전을 스토리텔링 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는 전남 임동창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돌의 빛’ 개막식 공연으로 시작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버스킹 그룹 ‘조이밴드’·‘피리 안지수’·‘이훈주 싱어송라이터’ 등이 전통 국악과 퓨전 국악 등을 공연했다. 외국인과 시민들을 위한 해설사 투어 등도 마련됐다.

해가 저물자 행사의 꽃 야행 코스 걷기가 시작했다. 야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란 풍선과 등불을 손에 들고 재명석등 광장을 시작으로 동명동 대숲길을 걸었다.

광주 재명석등은 옛 광주읍성 남문안의 대항사에 있던 석등이다. 8각 기둥에 “무진년에 임금이 오래 살고 나라가 편안하기를 바라며 석등을 세웠다”는 글이 새겨져 있어 ‘재명석등’으로 부르고 있다.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걸던 김지민(38)씨는 “산책할 겸 아이랑 큰 기대 없이 왔는데, 선조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도심 한 가운데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줄 몰랐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송민섭 기자

## 남구 ‘산업도시’로 발돋움

### 에너지밸리 등 신설 산업 2곳 연구기관·기업 입주 대기 중

광주 남구가 대촌지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에너지 신산업을 기반으로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단지 코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작년 연말에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했고,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와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본부, 에너지 강소기업인 인셀(주)가 입주했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R&D 클러스터가 줄줄이 입주한다.

또 분양 계약을 맺은 LS일렉트릭과 ㈜호그린에어도 시기를 검토 중이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

공정률은 98% 수준이다. 부지 조성은 완료된 상황이고, 조경 및 도로 공사 등을 남겨둔 상태다.

에너지밸리에 등지를 틀고자 하는 기업들도 줄을 잇고 있다. 이미 기업체 32곳에서 토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 태양광과 전자·통신장비, 전기장비, 자동차, 연구개발 업종의 기업체다.

현재 남아 있는 산업용지는 4필지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 관계자는 “2곳의 산업단지는 우리 남구가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 박현석 광산구의원, 농촌 마을무선방송 보급 기틀 마련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8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촌 마을의 재해 및 행정정보·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확성기를 통해 마을방송을 전파하는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각 가정에 무선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사업의 주요 골자다.

지원신청은 마을대표가 해당 동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이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박의원은 “기존 확성기를 통한 마을방송은 또렷하게 들리지 않을 뿐더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기구는 들을 수 없어 정보 전달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마련으로 주민들의 안전방안을 더욱 두껍게 하고 각종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19일 토론회를 통해 주민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김상철 기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